

## 총기45년 상반기 49일 불공 원만 회향

### 나라를 위한 진호국가 불사를 전교도가 펼치다

불교총지종 나라와 자녀를 위한 『총기45년 상반기 49일 나라와 자녀를 위한 불공』이 4월 8일 전국의 사원에서 회향한다.

지난 2월 20일 전국의 사원에서 입제한 총지종 교도들은 지난 49일 동안 스승과 함께 나라의 안녕과 자녀들을 위한 불공에 용맹정진으로 임했다.

불교총지종만의 특별한 의례로

진행되는 49일 불공은 『진호국가 불사』로 그 기원은 멀리 신라 명랑법사가 당나라 군대의 침략을 물리치기위해 시행한 ‘문두루비법’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진호국가불사』의 진언은 “움흠 야호사”이다.

이 진언은 종조 원정 대종사께서 밀교경전인 “수호국계주다라니경”

에 근거하여 제정했다.

이 불사의 주요 서원사항은 나라 발전, 국민안, 조국평화통일이다. 매년 2회 상·하반기로 나누어 각각 49일 동안 봉행 한다.

지난 총기20년(1991년)부터 종령 특별 유시로 자녀가 잘 되어 나라의 큰 인물로 만들기 위한 자손 불공이 추가되었다.

## 총기44년도 종단 정기 감사



▲ 총기 44년도 종단 정기 감사

불교총지종 사감원(원장 범상인)은 총기44년 종단 기관에 대한 정기 감사를 시행했다.

감사에는 사감원장 범상인 전수와 사감위원 정원심 전수, 승원 정사, 도헌 정사가 참석했다.

이번 정기 감사는 총기44년 통리원, 유지재단, 사회복지재단, 법장원, 밀교연구소가 진행한 업무에 대한 전반적인 감사가 실시됐다.

감사위원들은 예산 집행 등 회계처리, 물자 구매계약의 적정성, 인사처리, 종무원 복지실태에 대한 평가와 향후 방향에 대해 중점적인 점검을 했다. 감사결과에 다음 중앙총회에 보고될 예정이다.

통리원= 이수협 계장

## 부산·경남 신정회 지회장 이·취임 법회 봉행

### 효강 종령 예하 전임회장단에 공로패 수여



▲ 신정회 부산-경남 지회장 이취임식

“그동안 종단과 교구 발전위해 성심을 다하신 신인록 지회장님과 임원 여러분들의 노고를 치하하며, 비로자나 부처님의 가지력으로 가네 두루 평안하시고, 이루고자하는 서원 모두 성취하시기를 바랍니다.” 3월 29일 오후 1시 정각사 서원당에서

봉행된 신정회 부산, 경남지회장 이.취임식에서 효강 종령 예하는 통리원장 인선정사를 통해 이임하는 신인록 지회장과 임원단을 치하했다.

총지종 통리원장 인선 정사, 부산·경남 교구 스승 및 교도들이 참석한 가운데 봉행된 지회장

이.취임식에서 그동안 지회를 이끌어온 신인록 지회장은 이임사에서 “그동안 부족한 저를 아낌없이 성원해 주시고 한결같은 가르침을 주신 교구 스승님들, 지회 신정회 교도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지난 회장의 소임기간 동안 공덕이 있었다면 모두 여러분 덕분입니다. 그리고 허물이 있었다면 물론 저의 부족한 탓입니다.”며 지회장 재임동안 적극적으로 도와주신 스승님들과 교도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전임 신인록 지회장으로부터 소임을 물려받은 신임 황윤희 지회장은 “저는 오늘의 취임식에 즈음하여 『화합과 변화』를 실천하고자 교도 여러분들께 다음과 같이 세 가지 제안을 드립니다.”라며 “먼저, 사부대중이 화합해서 맑고 향기로운 도량을 만듭시다. 우리가 이 도량에서 신행활동을 하면서, 교도들 간에 지지와 격려를 보내주시고, 서로 협력하고 동참함으로 총지종을 맑고 향기로운 도량으로 만들어 갑시다. 두 번째는 시대에 걸맞게 우리 모두 변화합니다. 우리는 공의 원리를 제대로 이해하는 교도답게 신행활동을 합니다. 우리 주변의 환경은 시시각각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우

리도 그에 걸맞게 생각과 행동을 바꾸어 나갑시다. 세 번째는 새 교도를 위해 배려하는 마음으로 교화합니다. 내 주변에 계시는 신입교도들이 신심이 돈독한 교도로 변화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 따뜻한 마음으로 교화합니다.”라고 취임사에서 함께 만들어갈 총지종의 미래를 강조했다.

통리원장 인선 정사는 “재임기간동안 총지종 부산, 경남교구발전을 위해 정성을 다하신 전임 신인록 회장님을 비롯한 회장단의 노고에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전합니다. 또한 신임 황윤희 지회장님을 비롯한 회장단이 더욱 발전하는 지회를 이끌어주시기를 바라며 축하의 박수를 보냅니다.”며 인사를 전했다.

부산·경남 교구장 정인화 전수는 인사말에서 “부산경남 신정회 지회장직은 내려 놓으셨지만 종단을 위하고 종단을 사랑하며 또한 당신의 청춘과 같이 해온 종단을 아끼는 마음은 결코 내려놓지 않았으리라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신인록 지회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며 퇴임하는 신인록 전임 지회장의 노고에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또한 “새롭게 부산경남 신정회 지회를 이끌어야 하는 황윤희 회장님과 간부 여러분의 어깨에 우리 불교총지종 부산경남교구의 미래가 달려 있습니다. 새로운 신정회 지회 집행부 여러분의 생각 한번에, 말 한마디에, 우리 종단의 부산 경남 교구가 어떻게 움직여야 하는지를 결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는 부산경남 교구의 신정회지회의 역할이 참으로 크다는 것을 의미 합니다.”며 신임 지회장단의 발

전을 서원했다.

신정회 부산·경남 지회 신임 회장단은 지회장 황윤희 보살(정각사), 부회장 류길자 보살(정각사), 허태연 보살(성화사) 이지은 보살(자석사), 총무 조향선 보살(정각사), 신혜영 보살(법성사)이 구성되어 본격적인 지회 활동에 들어갔다.

부산= 정각사 이상록 통신원

### 새로운 종풍운동

첫째, 뼈를 깎는 듯한 철두철미한 수행으로 용맹정진하며 전신적(全身的)인 삼밀 관행을 실천해 나갑시다.

둘째, 정제(淨財)는 부처님 재산입니다. 소중하게 생각하며 관리를 철저히 합니다.

셋째, 즐거운 마음으로 수순(隨順)합니다.

넷째, 생활불교를 실천하고 널리 흥포(弘布)합니다.

다섯째, 중생제도에 열과 성을 다하며 신명(身命)을 바치도록 합니다.

## 제87회 춘계강공회

교화와 종단 발전방안을 논의하고자

춘계강공회를 다음과 같이 개최하오니

전국의 스승님들께서는 수회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1일 시 | 개강식 총기 45년 4월 26일(화)

회향식 총기 45년 4월 28일(목)

1대 상 | 종단 전 스승님

불교총지종 통리원장 인 선





김기자가 가다

# 바른 정진은 행복의 문을 여는 지름길

## 실지사 부림회 관득 손기성 회장



▲ 사진에 뒷줄 왼쪽부터 시계 방향으로 큰 딸 : 손정우, 큰 사위 : 김진영, 아들 : 손석현 (석원), 둘째 사위 : 이성우, 외손녀 : 이서아 둘째 딸 : 손현경, 외손녀 : 김서현, 본인 : 손기성 (관득), 처 : 박순임 (무량수), 외손녀 : 김나현

기술은 벼간 일이었다. 하지만 이를 악물었다. 가족들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겠다는 자신의 바램을 지키기 위해서 하루하루 고된 노동을 견뎠다. 18살이 되는 해 아버지가 오랜 병환 끝에 돌아가신다. 상을 치르고 출근 하니 외삼촌은 재봉틀 한 대를 가리키며 "이제부터 네가 쓸 미싱이다." 말했다. 5년 만에 정식 기술자가 된 것이다. 그동안 매를 맞으며 배웠던 기술을 최고의 양복 기술자인 외삼촌으로부터 인정을 받은 것이다. 관득 각자는 모두를 다 얻은 듯 했다. 조금씩 내일을 위해 저축하고 가족을 부양하면서 바쁜 일상을 보낸다. 그러나 마음 한 구석에는 배움에 대한 목마름이 자리하고 있었다. 지금 당장은 학교에 진학하지 않더라도 준비는 해두어야 한다는 생각에 '서울통신강의록'을 구매 독학을 시작한다. 그러면서 꾸준히 진언염송을 하고, 가슴속에 차오르는 부처님의 가지력을 느낀다.

양복기술자로 바쁜 일상을 보내다 보니 어느덧 노총각 소리를 듣는 나이가 됐다. 29살 되던 해 주위 사람의 소개로 평생 수행과 생활의 동반자인 박순임 무량수 보살님(계사생, 64세)을 만나 결혼한다. 경상도 상주 출신의 보살님은 대전에서 결혼식을 올리고 경주로 신혼여행을 갔다. 첫 날밤, 각자님은 새색시에게 "옴마니반메흠" 육자진언과 비로자나불 수인을 가르친다. 평생 수행을 같이 하자는 뜻이다. 무량수

공장도 운영해보고, 모든 일을 같이 했다. 어느덧 자식들도 하나 둘 태어나 1남 2녀가 태어났다. 비록 12번의 이사를 다녔지만 내집도 장만하고 아이들 대학 공부도 마쳤다. 장녀와 차녀는 배필을 만나 혼사를 치르고, 이제 엄마가 되었다. 딸 들은 시집을 갔지만 가까운 곳에 있어 자주 모인다. 주말에 오는 날에는 온 가족이 실지사 자성일 법회에 참석한다. 자녀들은 자라면서 부모님이 목소리를 높인 적이 없다고 한다. 부처님 같은 자애로운 마음으로 자식들을 키웠다. 큰 병 없이 잘 자라 사회의 일원이 되고, 결혼하여 부모가 된 자녀들이 관득 각자님은 그저 고마울 따름이다.

불자들의 수행 방법 중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 팔정도(八正道)다. 관득 각자의 인생사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생활이 바로 팔정도를 바탕으로 이루어진 것 같다. 정견, 정사유, 정어, 정업, 정명, 정정진, 정명, 정정 어느 하나 행하지 않은 것이 없다. 팔정도의 수행을 바탕으로 매일 진언염송으로 하루하루를 살아왔다. 비로자나 부처님의 가지력으로 이론 삶이라고 겸손히 말하는 관득 각자는 "진언염송은 매일 매일 변하는 모습은 보기 어렵지만, 수행이 쌓이고 쌓이면 처음의 나와는 완전히 다른 변화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며 작은 공덕이 모여 큰 복으로 돌아온다고 했다.

실지사는 각자님들의 사원에 대한 애정이 남다르다. 사원 환경 정리에서부터 법회 준비와 주차까지 각자님들의 손길이 안가는 곳이 없다. 총지종 신행단체 중 가장 활동적인 실지사 부림회를 이끄는 주인공이 바로 관득 손기성 각자(신묘생, 68세)다.

항상 웃음 띤 얼굴의 관득 손기성 각자는 어린 시절 어머니의 손을 잡고 시작한 진언 수행이 평생 내 가정을 지키는 든든한 버팀목이자, 생활 자체였다. 전쟁이 끝나고 모두가 어려운 시기를 묵묵히 견어온 손기성 각자의 삶과 수행을 소개한다.

진언염송은 매일 매일 변하는 모습은 보기 어렵지만, 수행이 쌓이고 쌓이면 처음의 나와는 완전히 다른 변화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밀교의 진언 염송 수행을 먼저 시작하신 분은 관득 각자님의 모친 행원심 조태순 보살이다. 올해로 88세를 맞은 노 보살님은 길고 어두웠던 일제 강점기를 지나고, 각자님의 부친을 만나 단란한 가정을 이루었다. 교편을 잡고 학생들을 가르치던 부친은 민족의 큰 아픔인 6.25를 만나 몸과 마음에 상처를 입어 병상에 눕는다. 그 어려운 시기를 비로자나 부처님의 가지력으로 이겨내려 각자님의 모친은 당시 진각중에 귀의하고 성심으로 진언수행에 매진했다. 물론 어머니가 사원에 나갈

때면 손기성 각자는 항상 같이 다녔다. 그러나 부친의 병환은 날로 깊어갔고, 가정 형편은 더 어려워 갔다.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당시 충청 제일의 명문인 대전중학교를 당당히 합격한 각자님은 가정 형편을 생각해 진학을 포기한다.

각자님은 당시 대전에서 최고의 양복 기술을 가진 외삼촌을 찾아간다. 일본에서 양복 기술을 배운 외삼촌은 어린 조카의 청을 받아들여 조수로 일을 시킨다. 하지만 어린나이에 양복

보살님은 어리둥절해 하며 따라했다고 한다. 그러나 그 날이 진언행자로서 새로 태어나는 날이었다. 몇 개월의 신혼생활을 대전에서 보내고 관득 각자는 서울로 갈 것을 결심했다. 좀 더 큰 곳에서 새로운 터전을 닦아보고 싶었다. 새 색시를 데리고 서울로 온 젊은 진언행자 부부는 쌍문동에 사글세를 얻어 새 인생을 시작한다.

부부는 정말 열심히 일했다. 직장 생활부터 시작해 작은

기자는 관득 각자의 인터뷰를 마치며 초등학교 바른생활부터 대학교정의 윤리학 교과서에 나오는 모범적 인간상이 바로 저분이 아닐까 생각했다. 모든 불자들이 저리 된다면 얼마나 좋은 세상이 될까. 팔정도의 삶과 꾸준한 수행은 우리의 삶을 편안하고 윤택하게 해준다. 욕심 부리지 않고 작은 것에 만족하면서 사는 것이 바로 내 불성을 일깨우는 삶이다.

실지사=김종열 기자

# 부처님 자비 광명, 어려운 이웃과 나눴어요

관 성 사	황 성 녀	1/27	10,000	지 선 행	2/18	10,000	황 귀 석	2/18	10,000	탁 상 달	2/17	20,000				
	김 대 기	1/27	10,000	덕 화 사	반 야 심	2/22	10,000	이 복 선	2/22	10,000	지 인 사	승 효 제	2/18	10,000		
	김 병 석	2/18	10,000		이 상 옥	2/15	10,000	실 지 사	정 경 자	2/25	10,000	지 성	2/18	10,000		
	김 병 석	1/26	10,000		시 정	2/15	10,000		정 경 자	2/1	10,000	허 성 동	2/22	30,000		
	인 선	2/22	20,000		원 만 원	2/15	10,000		조 성 우	2/1	10,000	제 석 사	법 계 월	2/3	200,000	
개 천 사	전 세 형	2/5	30,000	밀 인 사	정 정 희	1/29	5,000	실 보 사	이 순 옥	2/22	10,000	이 재 은	2/3	10,000		
기 로	해 정	1/28	10,000		이 채 원	2/13	10,000	성 화 사	신정희일동	2/15	100,000	초 록 어린이집				
	해 정	2/25	10,000		이 연 주	2/13	10,000	일원어린이집				황 화 성	2/22	30,000		
	대 관	2/22	10,000		이 기 상	2/15	10,000		강 경 화	1/28	10,000	불우이웃돕기성금	2/15	300,000		
	밀 공 정	2/22	10,000		안 옥 진	2/15	10,000		강 경 화	2/25	10,000					
	법 수 원	2/22	10,000		이 성 수	2/15	10,000		이 준 동	2/25	10,000	총 지 사	법 등	2/1	30,000	
	법 장 화	2/22	10,000		박 주 연	2/15	10,000		김 지 영	2/25	10,000		김 병 관	2/22	10,000	
	법 지 원	2/22	10,000		이 수 연	2/15	10,000		김 용 미	1/27	10,000		박 정 희	2/22	10,000	
	불 멸 심	2/22	10,000	밀 행 사	무 명 씨	1/26	10,000		구 미 자	2/1	10,000		신 용 도	2/22	10,000	
	사 흥 화	2/22	10,000	만 보 사	정 덕 순	1/27	10,000		이 향 례	2/22	10,000		백 지 순	2/6	30,000	
	상 지 화	2/22	10,000		정 덕 순	2/25	10,000		이 현 직	2/22	10,000		손 경 옥	2/25	10,000	
	수 증 원	2/22	10,000	벽 롱 사	양 정 현	2/1	10,000	운 천 사	무 명 씨	2/17	20,000		김 평 석	2/22	10,000	
	선 도 원	2/22	10,000		양 지 현	2/1	10,000		이 성 미	2/16	50,000		지 성 인	1/27	20,000	
	총 지 화	2/22	10,000	수 인 사	무 명 씨	2/1	10,000	정 각 사	변 순 개	2/3	10,000		화 음 사	무 명 씨	2/1	10,000
	일 성 해	2/22	10,000		정 순 득	2/15	10,000		조 성 화	2/25	10,000		사원명무기명			
	원 봉	2/18	10,000	선 립 사	심 지 장	2/16	10,000		탁 상 달	2/3	20,000		김 갑 선	2/19	10,000	

이서현 2/8 100,000  
2월26일부터 3월25일까지 **후원회 가입안내**

불교 총지종 사회복지재단 후원회는 부처님의 참사랑을 주위의 어려운 이웃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분들의 모입니다. 여러분의 정성은 재단 복지사업에 소중한 기여를 합니다.

**후원금 납부방법**  
1. 단체일 경우 회장님이나 담당자를 통하여 납부하시면 됩니다.  
2. 후원금 납부는 지로 또는 아래 금융기관에 자동이체를 하시면 됩니다.  
3. 회원번호란에 소속사원명을, 통신란에 주소를 기재해 주시면 지로용지는 후원자님 앞으로 발송해 드립니다.  
- 지로번호 : 7668610  
- 우리은행 : 122-177171-13-104  
- 예금주 불교총지종 사회복지재단

**불교총지종 사회복지 재단**  
전화 02)552-1083, 02)3452-7485

# 총지종 사회복지재단 이사회

## 3월 16일 통리원에서 주요사항 의결



▲ 총기 45년 사회복지재단 이사회

불교총지종 사회복지재단(이사장 인선)이 3월 16일 통리원 부장실에서 열렸다. 이사장 인선정사, 이사 우인정사, 이사회가 3월 16일 통리원 부장실에서 열렸다. 이사장 인선정사, 이사 우인정사, 이사회가 3월 16일 통리원 부장실에서 열렸다. 이사장 인선정사, 이사 우인정사, 이사회가 3월 16일 통리원 부장실에서 열렸다.

규, 방귀희 이사가 참석했다. 이날 안건은 총기44년 사회복지재단 결산안 심의, 교도가정 지원 연장의 건, 기타 복지재단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했다. 이사장 인선 정사는 "총지종 통리원 새 집행부와 함께 불교 복지의 나눔과 보시 정신을 구현 하는데 함께 고민하자"며 총기 45년에도 다양한 복지 사업을 전개 해 나갈 것을 밝혔다. 사회복지재단은 부산 비라밀 공부방, 전주 만다라 요양원, 일원어린이집, 초록어린이집, 포레스트 7단지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불교계 대표 복지재단이다. 사회복지재단 = 김병석 교무

# 진언사경으로 일체서원을 이룬다

## 밀교연구소, 16종의 각종 발원『진언사경집』발간



▲ 밀교연구소 간행 진언사경집

총지종 밀교연구소(소장 법경 정사)는 한국불교 종단 최초로 용도와 목적에 맞는 각종 『진언사경집』을 시리즈로 발간했다. 불교계에서는 경전이나 특정 진언과 다르니를 담아서 사경집을 단행본으로 발간한 적은 있었으나, 각종 서원과 발원에 적합한 진언들을 다양하게 실은 사경집을 종단 차원에서 내놓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물론 교계 출판사에서 진언을 가지고 사경집을 발간한 적은 있었지만, 총지종에서처럼 준제진언과 함께 다양한 진언들을 함께 실은 적은 없었다.

기존의 사경집은 대부분 경전의 말씀이나 특정 다리니를 일부 수록하였으나, 이번에 발간한 『진언사경집』은 밀교종단답게 진언만을 수록했다. 관세음보살의 42수 진언과 조전조에 간행된 각종 진언집과 밀교경전에 나오는 진언들을 발췌하여 기도목적에 맞도록 종류별로 제작했다는 점이 가장 큰 특징이다. 특히 밀교의 호마법(護摩法)에 따라 준제보살 진언에 의한 사중법(四種法)의 서원 진언을 실었으며, 각종 서원의 진언들을 한 데 모아 함께 수록했다는 점이 눈에 띈다.

「진언사경집」은 모두 16종으로 일상에서 가장 많이 발원하고 있는 취업, 결혼, 임신과 병고소멸, 경제해탈, 업장소멸, 참회 등의 진언들을 다양하게 수록했다. 특히 총지종의 염송의례에 따라 정법계진언과 호신진언, 육자진언, 준제진언을 순차적으로 사경하고 사중(四種)의 서원진언과 함께 각종 발원에 해당하는 진언들을 사경할 수 있도록 제작했다는 점이 다른 사경집과 구분된다. 총지종 밀교연구소 「진언사경집」은 단순히 사경이 목적이 아니라 진언 염송과 함께 진언을 사경토록 했다는 점에서 진언수행의 새로운 방안이 될 것이다.

「진언사경집」을 발간한 법경 밀교연구소장은 "진언염송을 수행의 중심으로 삼아 온 총지종이 염송 수행과 함께 사경을 겸함으로써 신비한 진언의 묘미를 더욱 상승적으로 얻게 될 것"이라면서 "염송을 마칠 때나 평소엔 진언염송과 함께 진언사경을 항상 병행한다면 수행생활과 공덕을 크게 이루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사경집 발간은 대구경북교구의 요청과 효강 종령 예하의 재가를 통해 이루어졌으며, 1차적으로 대구경북교구 사원에 배포하고 4월 춘기강공회를 통해 승단 전체의 의견을 수렴한 후 전국 사원으로 배포할 예정이다.

총지종보 인터넷 뉴스(www.chongjinews.com)

# 기로스승 선도원 전수 동해중에 장학금 천만원 기탁

## 불교인재양성에 밑거름이 되기를 서원

총지종 기로스승 선도원 전수가 지난 3월 종립 동해중학교에 장학금 일천 만원을 쾌척했다. 동해중학교에 따르면 종단 기로스승이시고 동해중학교 이사를 역임한 선도원 전수가 온라인 입금 을 통해 장학금 1,000만원을 기탁 했다 고 밝혔다. 선도원 전수님은 장학금 전달식 같은 요식적인 행위는 일체하고 싶지 않다고 전하며, 우리 학생들이 불교적 인재로 육성되기를 서원한다고 짧은 소감을 학교 측에 전달했다.

기로스승 선도원 전수는 경북 포항 출신으로 영남대학교와 대구교육대학 원 마치고 교직에 몸담았다. 총지종 창 종기부터 교도로 원정 대성사의 가르침을 받고 진언염송 정진을 계속했다. 1993년 총지종 중앙교육원을 수료하고 승직에 들어 실시사, 총지사 주교, 통리 원 재무부장, 총무부장, 중앙총의회의 원, 학교법인 관음학사 이사, 사회복지 재단 이사 등 종단의 주요 요직에서 봉 직했다. 2009년 출세간위 지수에 승서 됐고, 2012년 기로스승으로 진원했다.



▲ 기로스승 선도원 전수

# 서울·경인교구장에 법천사 주교 법경 정사 선출



법경 정사 (밀교연구소장/법천사 주교)

서울경인교구는 교구회의를 3월 8일 신 임 교구장에 법경 정사를 만장일치로 선출 했다. 신임 교구장 법경 정사는 "서울, 경인 교 구는 종단의 중심부인 통리원과 총본산이 있는 교구입니다. 효강 종령 예하의 교지 와 종단의 모든 일에 화합으로 솔선수 범 하여 모범을 보이는 교구로 발전하기를 서 원합니다."며 화합과 소통을 최우선으로 하는 교구가 되자고 취임의 소감을 밝혔 다. 신임 교구장 법경정사는 성남 법천사 주교와 종단의 밀교연구소장을 맡고 있다.

# 서울·경인지구 신정회 3월 정기회의 개최

## 성남 법천사에서 종단발전을 서원하다



▲ 서울·경인지구 신정회 3월 정기회의(남한산성 수어장대)

서울·경인지구 신정회(지회장 만덕장)이하 지회 는 지난 3월 9일 성남 법천사에서 정기회의를 가졌 다. 이날 회의에는 지회 간부와 지회 사원의 간부 등 16명이 참석했다. 법천사 주교 법경 정사의 집공으 로 공식법회를 갖은 후 회의가 개최되었으며, 이날 회의에서 신정회의 새해 활동과 일정 등이 논의되었 다. 지회 만덕장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신정회의 발 전이 곧 종단의 발전을 이룬다"고 말하면서 신정회 의 활발한 활동을 당부했다. 회의에서 지회 간부들 의 괴산 중원사 집중수련 동참과 지회의 전주 만다 라요양원 자원봉사, 관불 및 차기 모임 일정 등이 결 의되었다. 회의를 마치고 남한산성으로 이동하여 산 행을 실시한 후 정기모임의 모든 일정을 마쳤다.

# 단향사 헌공 및 만다라 봉안 가지 불사 봉행

부산·경남교구 단향사가 불사를 마무리하고 헌공 및 만다라 봉안 가지 불사를 봉행하고자 합니다. 수희 동참하시어 헌공 및 만다라 봉안 가지 불사가 원만히 회향하기를 서원합니다.

일 시: 총기 45년 4월 26일 화요일 12시

장 소: 단향사 서원당





밀교경전읽기 ①

불설대승장엄보왕경해재

원정대성사 편 "밀교장전"

경을 번역한 사람

중인도 나란타국 밀립사 삼장사문 천식...

경의 내용

이 경은 네 권으로 되었으며 밀교의 관...

육자대명의 공덕은 광대하여서 사랑할 수 없는 것이니, 이 진언은 얻는 곳을 모르더라도 이것을 지송하기라도 하면...

제일권의 내용

재개장 보살이 천룡 언달바, 긴나라 천녀...

이에 부처님은 이 상스러운 상은 관자재...

관자재의 지옥구제 상과 염마왕이 관자...

제이권의 내용

부처님이 비사부여래 세상에 인욕선인이...

제삼권의 내용

부처님이 재개장을 위하여 관자재의 구...

이 때에 관자재는 기타림으로 오려고 도...

그러나 그덕은 일체 유정으로 하여금 극...

제삼권의 내용

부처님이 재개장을 위하여 관자재의 구...

다. 또 그에게는 육자대명이 있어서 이 진언...

이 사람이 다함없는 변재와 청정 지혜와...

이 사람이 다함없는 변재와 청정 지혜와...

이 사람이 다함없는 변재와 청정 지혜와...

데스크 칼럼

알파고와 인간의 행복

3월 9일 서울의 한 호텔에서 한국 바...

년 안에 컴퓨터가 프로 최정상상을 이...

연산하지 않고 가지치기를 통해 중요한...

로 인간의 평균 수명은 우리나라를 기...

이중삼중으로 빛을 반영하고 있는 장엄...

래서 애초에 이 싸움은 조건 상 성립이...

初發心自警言



나를 돌아보는 수행인의 길잡이! 불교수행의 길에 처음으로 들어선 불자들의 필독서

초발심자경문

· 제초심학인문(誠初心學人文) · 발심수행장(發心修行章) · 자경문(自警文)

- ✓ 쉬운 번역! ✓ 간결한 표현! ✓ 읽기 쉬운 원문!

"<초발심자경문>은 불교수행의 길에 들어선 초심자뿐만 아니라...

-머릿말 중에서-

화령 번역 / 불교총지종 법장원 발행

법보시 받습니다. 법보시가 (7,000원 / 10권 이상)...

불교의 선정 47

생활 중의 정념 5

# 음악 명상



화령 정사 / 철학박사 중앙교육원장

마음이 흐트러지거나 산란할 때는 음악을 들으며 마음을 다스리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현대인들은 바쁜 생활에 쫓겨 마음을 고요히 가질 여유가 없다. 일상의 스트레스로 인하여 머리에 열이 올라 있어 신경질적이고 주위에 대하여 과민반응을 보이며 감정이 격앙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 그럴 때 좋은 음악은 한줄기 샘물처럼 머리를 맑게 해주고 흥분과 초조로 들뜬 마음을 가라앉혀 준다. '쇼생크 탈출'이라는 영화에서 주인공 앤디가 혹독한 맛가를 치를 것을 각오하고 교도소 전체에 '피가로의 결혼'을 울려 퍼지게 했던 장면은 음악의 위대함을 여실히 보여준 명장면 중의 명장면이다.

음악은 알게 모르게 우리 생활의 많은 부분을 차지한다. 쇼핑센터나 커피숍, 호프집 같은데서 울려 나오는 음악을 들어보면 알게 모르게 구매 욕구를 자극하고 거기에 맞는 분위기를 음악을 통해서 띄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서로가 대화를 나눌 경우에도 잔잔한 음악을 틀어놓고 차 한잔을 곁들이면서 나누면 훨씬 화기애애하고 소통이 잘 되는 것을 경험한 사람들이 많을 것이다.

음악이 깊은 명상에 몰입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지만 정념에 들기 전에 정지작업으로서 마음을 안정시키고 순화하는 데에는 큰 역할을 할 수 있다. 최근에는 '음악치료'라는 말도 있는 것처럼 음악을 잘 이용하면 마음을 치유하고 다스리는 데에 상당히 효과가 크다. 아무래도 최고의 음악은 자연의 소리가 아닌가 생각되지만 지금은 시절이 좋아서 인터넷으로도 좋은 음악을 쉽게 접할 수 있다. 많은 종류의 명상 음악이 소개되고 있으며 특히 불교명상음악은 동서양을 막론하고 많은 사람들이 선호한다.

너무 시끄럽고 요란한 음악은 오히려 감정을 흥분시키지만 딱히 명상음악이 아니더라도 자기의 마음을 안정시켜 줄만한 음악이면 무엇이든 무방하다. 자기가 좋아하는 선율이나 노래를 들으면 마음이 가라앉고 잔잔한 기쁨이 배어나오면서 편안해지는 경험은 누구에게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아무리 좋은 음악이라도 자연의 소리를 따라가지는 못할 것이다. 바람소리, 새소리, 물소리 등등 자연에 가깝게 귀 기울이다 보면 자연과 내가 일체가 되는 듯한 묘한 편안함이 느껴질 때가 있다. 그러나 도시



생활에서는 자연의 소리보다는 오히려 소음이 더 많기 때문에 자연의 소리를 느낄 기회가 적지만 다행히 자연의 소리만을 모아 놓은 음원도 있다. 심신 안정과 정신집중을 위하여 그런 것들을 이용하는 것도 좋을 것이다. 아무리 바쁜 생활 가운데에서도 잠시라도 짬을 내어 음악에 귀 기울이고 자연의 소리에 귀 기울여보는 것도 정념 공부에 큰 도움이 되는 것은 확실하다.

음악으로 몸과 마음의 긴장을 풀 때에는 우선 편안한 자세로 앉거나 누워 온몸의 힘을 빼고 음악 소리에 집중하면서 아름다운 선율이 내 몸을 관통한 내 몸 구석구석에 스며들어 나의 몸과 마음이 정화되면서 편안해지는 것을 상상한다. 처음에는 인위적인 음악에서부터 시작하지만 주위의 모든 소리가 정겹고 아름답게 느껴진다면 음악을 이용한 정념 공부는 경지에 달했다고 할 만할 것이다.

### 시각을 통한 정념의 수련

정념 수련을 하려면 눈을 감고 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지만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다. 가부좌하고 앉아 눈을 감고 있는 것만이 정념이 아니고 일상생활의 모든 것에서 마음이 흐트

러지지 않아야 진정한 정념이라고 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눈을 감든 뜨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마음을 얼마나 잘 집중하고 깨어있는가가 중요하다.

눈을 감고하는 정념수행도 좋지만 눈을 뜨고 하는 정념수행도 좋은 점이 많다. 정념 수행을 하기 위해 반드시 눈을 감아야 한다면 장소나 시간 등 환경의 제약이 많이 받지만 눈을 뜨고 수행을 한다면 우리 시야에 들어오는 모든 것이 정념 수행의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일상생활도 큰 지장 없이 영위할 수 있게 된다.

아름다운 모습이나 경치, 혹은 그림 등은 대뇌의 중추피질을 자극하여 심리적인 안정감을 가져다주며 오장육부도 편안하게 해 준다고 한다. 계속해서 호흡 명상만 하던 지루할 수도 있고 계속하고 싶은 마음이 사라질 수도 있기 때문에 눈앞에 있는 어떤 대상에 집중하여 그것을 찬찬히 음미하면 지루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정념수련을 할 수 있다. 그 방법 중의 하나가 좋은 그림을 앞에 놓고 찬찬히 감상하는 것이다. 마음을 편안히 하여 그림에 집중하다보면 평소 느끼지 못했던 새로운 느낌이 다가오는데 때로는 아주 입체적으로 눈앞에 새로운 정경이 펼쳐지기도 한다. 이런 경우 너무 화려하고 요란하거나 자극적인 그림보다 선화(禪畵)나

좋은 음악은 한줄기 샘물처럼  
머리를 맑게 해주고  
흥분과 초조로 들뜬 마음을  
가라앉혀 준다

산수화 등이 시각에 의한 정념 수행을 하는 데에 매우 효과적이다.

호흡을 고르면서 눈앞의 그림에 마음을 집중하고 찬찬히 바라보노라면 그림과 내가 하나가 된 듯한 느낌이 들 때가 있다. 이러한 관상법이 진화된 것이 밀교의 종자관이나 월륜관, 아자관 등의 관상법이다. 눈앞에 나타난 대상에 대한 정신 집중과 상징성의 극대화를 통하여 심신의 조화를 이루고 대우주와 일체가 되는 것이 밀교의 관법인데 초보 단계에서는 그림을 이용하여 정신을 집중하고 심신을 편안하게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반드시 그림이 아니더라도 눈앞의 경치나 정물을 통하여 마음을 안정시키고 편안하게 만들 수 있다. 그저 멍하니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사물의 색, 모양, 질감 등을 편안하게 응시하면서 바라보다보면 어느새 눈의 긴장도 풀어지고 여태까지 느끼지 못했던 사물의 깊은 맛을 느끼게 된다. 눈앞에 나타난 사물에 집중하는 것은 때로는 눈을 감고 호흡만 관찰하는 것보다 훨씬 잘 집중할 수 있다. 때로는 집중 대상을 바라보다가 눈을 감고 대상을 떠올리기도 해 본다. 그러다가 대상의 모습이 흐려지면 다시 눈을 뜨고 응시한 다음 눈을 감고 대상을 마음속으로 떠올

려 본다. 만약 잡념이 생기면 다시 호흡을 몇 차례 가다듬은 다음 다시 사물을 응시하면서 마음을 집중한다. 이런 식으로 사물을 시각적으로 대하게 되면 기억력이 증진될 뿐만 아니라 사물의 본질에 대해서도 더 명확히 파악할 수 있고 일상에서도 정돈된 마음가짐으로 매사를 대할 수 있다.

이렇게 대상을 시각적으로 느끼면서 정념수련을 하기 위해서는 앞에서도 말했듯이 마음을 안정시켜 줄만한 선화나 산수화, 때로는 정물화 내지 추상화도 좋지만 실제의 사물이나 경치도 좋다. 그리고 이런 것들 대신에 요즘은 자기가 스스로 색칠을 하거나 그려보도록 하는 교재들도 많이 개발되어 '그림 힐링'이나 '미술 명상' 등의 이름으로 시중에서 판매되고 있다.

불교 관계의 명상 미술로는 불화나 만다라 그리기 등의 교재가 있어 선을 따라 색칠하는 것이 있는데 이러한 것들도 마음을 가라앉히고 집중하는 데에 좋은 재료가 될 수 있다. 시각을 통한 정념에 의하여 일상에서 보는 흔한 것들도 새로운 느낌, 새로운 의미로 다가오면서 심신이 편안해지고 번뇌가 소멸된다면 시각을 통한 정념의 수련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한 것이 된다.



이 책을 읽으면 관세음보살의 가피가 저절로!!!

## 관세음보살 예찬문

“대자대비 구고구난 관세음보살 온화하신 자비 광명 온누리 비추시네  
무명 중생 괴로움 모두 살피사 빠짐없이 골고루 건져주시네”



- 관세음보살은 누구인가?
- 관음경
- 천수경
- 신묘장구대다라니해설
- 관세음보살 관련 각종 진언
- 음마니반메혹의 의미와 수행법

화령 편역 | 불교총지종 법장원 발행  
정가 15,000원 | 법보시가 8,000원 (10권 이상)

# 박물관 보존과학 40년을 한 눈에 본다

## 「보존과학, 우리문화재를 지키다」 국립중앙박물관 특별전시



▲ 삼양동 출토 금동관음보살 입상



▲ 문화재 연구소 보존과학실을 견학하는 학생들

- 전시명 : 박물관보존과학 40주년 기념특별전 <보존과학, 우리문화재를 지키다>
- 기간 : 2016년 3월 8일 ~ 5월 8일
- 장소 : 국립중앙박물관 상설전시실 1층 특별전시실
- 전시품 : 기마인물형토기(하인상) 등 57점



▲ 용무니 주전자 복원 전후



구에 많은 성과를 이룬 시기다.

금속, 도자기, 서화, 목재, 석재 등 각 분야별 대표적인 재료들을 소개한다. 그 재료를 가공하여 제작한 문화재들의 실물과 기술을 살펴볼 수 있다. 대표적으로 금속의 누금과 주조기술, 도자기류의 동화·철화·청화기법, 서화의 배채법, 목공예품의 나전기법 등 우리문화재 속에 숨어있는 전통기술을 유물과 전시보조물을 함께 구성하여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다.



▲ 초상화의 적외선 투시 조사법

가 될 것이다.

2부 '병든 문화재를 치료하다'에서는 최근에 보존처리된 유물의 사례를 중심으로 구성하였다. 2014년 국립중앙박물관 보존과학의 최대성과 중 하나인 신라금관총 "이사지왕 대도" 등 최근의 보존처리 성과물들의 처리 과정을 유물과 처리영상으로 확인할 수 있다.

국보 제193호인 봉수형우리병은 1980년대 1차 보존처리 이후, 2014년 다시 보존처리한 사례다. 처음 보존처리 진행할 당시부터 재료의 열화나 변색으로 인한 재처리 상황을 염두에 두고 보존처리를 실시하였기 때문에 30년이 지난 후 가역적인 보존처리가 진행될 수 있었다. 보존철학과 보수규범적인 관점에서 매우 중요한 시사점을 지니고 있는 사례다. 용 구름무늬 주자는 최근 새롭게 3D스캐닝 기법을 활용하여 복원한 문화재로 문화재복원에 새로운 기술의 도입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전시실 내부에 보존처리실을 재현하여 지금까지의 전시에서는 볼 수 없었던 문화재 치료 과정을 생생하게 만날 수 있다. 박물관의 보존처리 공간은 일반인의 출입이 제한되는 장소이기에 일반 관람객이 보존과학과 소통할 수 있는 좋은 기회

3부 '문화재의 생명을 연장하다'에서는 최근 보존과학분야에서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박물관의 환경관리에 대한 주요 활동을 소개한다. 금속문화재의 부식, 직물류 피해 등 문화재에 해를 끼치는 요인들에 대해 박물관은 환경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볼 수 있다.

에필로그에서는 이번 전시에 소개하지 못했지만 보존과학 역사에서는 중요한 국보·보물급 문화재들이 어떻게 복원되었는지 당시의 보존처리 기록을 아카이브를 통해 살펴 볼 수 있도록 구성했다.

보존과학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전시기간 중 주중 1일 2회(오전 10시, 오후 2시)전시해설을 운영한다. 주말에는 초등학생 중에서 선발한 "미래의 보존과학자"가 어린이들 눈으로 이해한 보존과학 해설(1일 1회, 오후 2시)을 진행한다. 매주 수요일 야간개장일에는 '큐레이터와의 대화시간(오후 7시)을 통하여 보다 심층적인 해설을 접할 수 있다

### 문화재는 한 국가와 개인의 소장품을 떠나

### 인류 전체가 공유하고 보존해야 할 공동의 자산이다

우리가 박물관 전시실 유리창 너머로 보는 문화재와 문화유적지는 많은 전문가들의 노력으로 보존된다. 문화재는 이미 오랜 세월을 지나온 유물로 그 보존을 위한 특별한 조건들을 가지고 있다.

문화재는 한 국가와 개인의 소장품을 떠나 인류 전체가 공유하고 보존해야 할 공동의 자산이다. 최근 국립중앙박물관과 국립고궁박물관은 소장 유물의 보존과 수장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어떤 과학적 작업들이 이루어지는가를 다루는 특별 전시들이 열리고 있다.

국립중앙박물관(관장 김영나)은 2016년 3월 8일에서 5월 8일까지 특별전 "보존과학, 우리문화재를 지키다"특별전시를 개최한다. 올해는 국립박물관에서 보존과학이 시작된 지 40주년이 되는 의미 깊은

해이다. 이번 전시는 지난 40년간의 박물관 보존과학의 역사를 조명하고, 보존과학의 역할과 성과를 소개한다.

박물관 보존과학 초창기부터 최근까지 보존처리된 문화재중 대표적인 문화재 57점을 선보인다. 우리문화재의 재료와 기술을 살펴볼 수 있는 전시 보조물 60여점을 활용하여 총 5부로 구성하였다.

프로그램에서는 박물관보존과학 초창기의 보존처리 활동 등을 되돌아 볼 수 있도록 구성했다. 국보 제91호 기마인물형 토기(하인상), 국보 제127호 금동관음보살입상, 보물 제366호 갑은사지 서삼층 석탑 사리외함 등 박물관보존과학 초창기의 국보급 문화재 복원과정을 유물과 당시의 기록들을 함께 정리하였다.

현재는 보존과학이 여러 종류의 재질에 따라 전문분야가 세분화되어있지만 90년대 이전까지만하여도 한 사람이 2-3종류 이상의 재질을 담당했다. 지금보다 시설과 장비, 전문성이 부족했지만 우리문화재를 지키기 위해 노력하였던 열정만큼은 누구보다도 컸던 시기였다.

1부 '우리 문화재의 재료와 기술을 보다'에서는 90년대 이후에 활발하게 진행해온 현대과학기술의 도입과 응용의 결과물을 통해 과학의 발전이 문화재 보존과학에 미친 영향 관계를 살펴볼 수 있다. 특히 문화재조사 연구에 X선, 적외선, 자외선 등 "빛"을 이용한 장비들을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활용하여 우리문화재의 내부구조를 들여다보게 되었다. 각 재질별 전문 인력의 확보로 우리문화재의 전통기술 연

**불교총지중 사회복지재단**  
**일원 어린이집**

· 맑고 밝은 어린이 · 자율적이며 더불어 함께 크는 어린이  
· 창의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어린이 · 이웃, 나라, 자연을 사랑하는 어린이

일원어린이집 : 강남구 광평로 3길 21 ☎ 02.495-3221

건강하고 지혜롭고 예의바른  
초록반 어린이들

**불교총지중 사회복지재단**  
**강남구립초록어린이집**

불교총지중 사회복지재단 강남구 현릉로 590길 63 리엔파크 5단지 아파트 관리동 1층  
사회복지재단 강남구립초록어린이집 문의: 02-445-2326



# 깨달음의 꽃 피면, 자비의 열매 맺혀 봄이 오는 소리, 봄의 전령 꽃 지혜의 눈을 뜨면 봄꽃이 더 아름답다

**불교는 꽃의 종교**  
 봄소식을 전하는 전령사는 바로 꽃이다. 얼음이 채 녹기도 전에 언 땅을 뚫고 올라오는 얼음새 꽃이나 눈 덮인 가지에서 꽃을 피우는 매화가 가장 먼저 봄을 전한다. 잎이 나오기 전에 색깔의 꽃봉오리부터 피우는 봄꽃을 부처님은 다르마에 비유했다. 겨울을 이겨내고 생명의 신비를 보여주는 그 예나지는 치열한 수행을 닦아왔다. 부처님은 깨달음의 꽃이 피고 난 다음 자비의 열매가 맺힌다며 봄꽃을 깨달음이라고 말씀하신 거다. 그래서 봄꽃을 보면 깨달음에의 치열함이 생각난다. 일본의 도겐선사는 매화를 석가의 눈이라고 했다.

올해도 어김없이 봄꽃이 소리 소문 없이 한반도를 향기로 덮어가고 있다. 불교와 꽃, 그 인연은 어디서부터 시작될까?



▲ 연꽃

**처럼상징, 연꽃이 불자**  
 불교와 꽃 하면 불교를 잘 모르는 이도 가장 먼저 떠올리는 꽃은 단연 연꽃이다. 부처님이 룸비니동산에서 태어났을 때 부처님의 발걸음마다 피어난 꽃이 바로 연꽃이다.

연꽃은 인도의 고대신화에서부터 등장한다. 불교가 성립되기 전인 고대인도 브라만교에서 연꽃과 관련된 신화의 내용을 찾을 수 있다. 혼돈의 물 밑에 잠든 정령 나리아나의 배꼽에서 연꽃이 솟아났다는 내용이다. 이를 기반으로 연꽃은 우주의 창조와 생성의 의미를 지닌 꽃이라는 믿음이 생겨났고 '세계연화사상' 또한 나타났다. 세계연화사상은 불교에서 부처님의 지혜를 믿는 사람이 서방정토에 왕생할 때 연꽃 속에서 다시 태어난다는 연화화생(蓮華花生)으로 이어진다.

연꽃이 불교의 상징이 된 건 성장환경에서부터 비롯된다. 더러운 진흙 속에서 크지만 청결한 꽃이 피어난다. 그래서처럼상징(處染常淨)이다. 오염된 환경에서도 순수하고 깨끗한 연꽃. 부처님은 불자는 연꽃 같아야 한다고 강조하셨다.

번뇌와 고통의 바다가 펼쳐진 사바세계에서 살아도

세상의 더러움에 물들지 않고 오직 부처님의 가르침을 받들어 아름다운 신현의 꽃을 피우는 것. 바로 불자가 지향해야 할 삶의 모습이다.

연꽃은 꽃이 피면서 동시에 열매가 맺히는 식물이다. 이를 일컬어 화과동시(花果同時)라고 한다. 부처님은 꽃이 필과 동시에 열매가 맺히는 것이 바로 인과의 도리를 설명해준다고 하셨다. 꽃은 열매를 맺기 위한 수단이자 열매의 원인이 된다. 꽃이 인(因)이요, 열매가 과(果)다.

연꽃문양 가운데 여덟 장의 꽃잎을 가진 연꽃은 더 중요하게 여겨진다. '대일경'의 세계를 형상화한 태장계만다라의 중심에는 8엽 연꽃이 그려져 있다. 이를 중대팔엽원이라고 부른다.

비로자나불인 대일여래가 연꽃의 중앙에 위치하고, 8개의 연꽃잎에는 부처와 보살이 자리했다. 동방 보당여래, 남방 개부화왕여래, 서방 무량수여래, 북방 천고뇌음여래는 지혜를, 보현·문수·관음·미륵보살은 중생 제도를 위한 네 가지 방편, 즉 사섭(四攝)을 상징한다.

여덟 장의 연꽃잎이 하나에서 펼쳐진 것처럼 모든 법은 하나의 법으로 귀결된다는 걸 만다라를 통해 드러내는 것이다. 만다라는 모든 불·보살 등을 그 지위에 따라 배열해 그린 그림이다.

**불두화, 부처꽃, 동자꽃 등 불교 인연 깊어**  
 그런데 불교와 인연 있는 꽃이 연꽃 하나뿐일까? 상상의 꽃 우담바라를 제외하고 말이다. 꽃의 여왕은 장미다. 화려한 자태와 색은 눈을 홀리고, 그 진한 향기를 마음을 홀린다. 장미가 꽃의 여왕이라면 꽃의 왕은 모란이다. 작약은 꽃의 재상이라고 한다. 모란과 작약은 연꽃과 함께 불전에 공양하는 꽃이다. 법당에 사용하는 문양도 연꽃과 모란이 많다.

해마다 봄이 무르익으면 불두화가 피어난다. 육계가 솟아오른 부처님 머리모양을 닮았다 해 불두화라 불린다. 부처님오신날 전후에 만개하기에, 사찰에서 정원수로도 많이 식재되어 있다. 옛날에는



▲ 불두화



▲ 부처꽃



▲ 동자꽃

아예 '절나무'라고 불렀다고 한다. 백당나무를 개량한 품종이라 불두화는 열매가 맺히지 않는다. 후손을 남기지 않는 모습에서 청정비구의 모습을 찾는 해석도 나온다. 불두화의 잎사귀는 세 갈래인데 이것이 불법승 삼보를 가리킨다는 말도 전한다. 꽃말마저도 은혜, 베풀인 불교의 꽃이다.

봄이면 하얗게 꽃망울을 피는 층층나무 꽃 역시 불교와 깊은 인연을 맺고 있다. 층층나무 앞으로 전을 붙여 부처님전에 올렸다는 옛스님들의 얘기가 전하기도 한다. 층층나무는 무르지도 너무 단단하지도 않은 재질이라 팔만대장경 경판에도 많이 사용돼 불교와 친숙하다.

화려한 붉은 꽃이 인상적인 칸나는 붓다의 피에서 싹이 돋아났다는 이야기가 전한다. 먼 옛날 악마들은 불타의 영력과 명성에 질투를 하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악마들은 붓다가 외출을 한다는 이야기를 듣고는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거대한 바위를 준비해두고 붓다가 지나가기를 기다렸다.

마침 붓다가 계곡을 지나가자 악마들은 바위를 밀어 떨어뜨렸다. 바위는 바로 붓다의 발 밑에 떨어진 다음 산산이 부서졌다. 그 때 파편 하나가 붓다의 발가락에 상처를 입혀 피가 났다. 그 피가 대지로 스며든 자리에서 꽃이 피었는데, 그 꽃이 칸나다.

슬픈 전설이 서린 꽃도 있다. 바로 동자꽃이다. 오세암 동자가 관세음보살의 가피를 입어 한겨울을 거뜨히 이겨냈다면 동자꽃이 된 동자는 스님을 기다리다 얼어 죽는다. 동자꽃은 동자를 묻은 곳에서 피어났다는 아픈 전설을 품고 있다.

이름만으로도 불교와의 인연을 확실히 드러내는 꽃은 부처꽃이다. 백중날 연꽃을 공양하려했던 불자가 큰비로 물이 불어 연꽃을 팔 수가 없게 되자 큰 실망에 빠져있었다고 한다. 이때 지나가던 백발노인이 강변에 핀 붉은 꽃을 공양하면 부처님이 좋아할 것이라는 조언을 했다. 이 말은 들은 불자가 이 꽃을 부처님께 공양했다고 해서 부처꽃이라고 한다는 전설이 있다.



▲ 재스민



▲ 칸나꽃

**부처님, 꽃을 수행자에 비유**  
 필리핀과 인도네시아의 국화로도 유명한 재스민은 6-9월 꽃이 피는데, <법구경>에서 그 흔적을 찾을 수 있다. 부처님은 '백당나무, 말리화, 연꽃의 향기가 바람을 거스를 수 없듯 삼보를 의지처로 삼고, 오계를 지키고, 탐욕스럽지 않은 거룩한 이의 명성 또한 온 세상에 퍼진다'고 말씀하셨다. 때문에 태국이나 스리랑카에서는 화환을 만들거나 꽃잎을 물그릇에 띄워 부처님께 공양한다.

<대승본생심지관경>에서도 꽃과 관련된 설법을 찾을 수 있다. '울금화는 시들어도 다른 싱싱한 꽃보다 가치가 있다'며 '정견(正見)을 가진 비구도 이와 같아서 중생보다 백 천만 배나 훌륭하다'고 나온다. 여기서 말하는 울금화는 식물학에서 지칭하는 울금이 아닌 사프란이다. 사프란은 값비싼 향신료로 유명한데, 부처님은 부피가 작지만 가치 있다는 의미로 자주 비유해 쓰곤 했다. <근본설일체유부나야>에 네 가지 물건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중 부피가 작고 가볍지만 아주 값진 것으로 비단과 울금향을 들고 있는 것 또한 같은 맥락이다.

여름이면 모감주나무에서 노란 꽃이 송송송골 피어난다. 한동안 꽃을 보고 있노라면 금비가 내리는 것 같다하여 'Goldenrain tree'라는 영어 이름을 갖고 있는 아름다운 꽃이다. 모감주나무가 불교와 인연이 깊은 건 꽃이 아니라 열매 때문이다. 모감주나무의 열매는 완전히 익으면 돌처럼 단단해진다. 만지면 만질수록 윤기를 더해, 염주의 재료로 많이 쓰인다.

그래서인지 '금강자'라는 이름으로 불리기도 한다. 고려시대 숙종 임금이 절에 머물면서 금강자와 수정 염주 각 한 꾸러미를 시주하였다는 것과 조선시대에는 명나라 사신이 태종에게 금강자 3관을 예물로 바쳤다고 기록을 통해 모감주나무의 또 다른 이름이 금강자였다고 전해진다.

모감주나무는 옛날에는 '묘감주나무'와 '묘각주나무'로 불리기도 했다. '묘감'은 중국 선종의 중심사찰이었던 영은사 주지스님의 법명이었으며 '묘각'은 불교에서 보살 수행의 가장 최후 자리로 번뇌를 끊고 지혜가 원만하게 갖춰진 자리를 말한다. 이처럼 이름 또한 불교와 깊은 인연을 드러낸다.

모두 다 정리하진 못했지만 연꽃만이 불교와 깊은 인연을 자랑하는 것은 아니다. 우리가 잘 알지 못했던 사프란이나 칸나에서도 불교의 향기가 솔솔 풍겨난다. 불교는, 부처님의 말씀은 그야말로 꽃처럼 아름답다.

강지연 구성작가

**불교총지중 사회복지재단**

서초구립 포레스타 7단지 어린이집

서울시 서초구 청계산로 11길 7-12 708동 1층 / ☎ 070-7204-2030

**불교총지중 사회복지재단**

바라밀 공부방

청소년들의 활기찬 심터

부산광역시 동래구 명륜동 8-8 ☎ (051)552-0705



법경 정사 (밀교연구소장/법천사 주교)

밀교연재 깨달음의 세계 · 불보살의 도량, 법경정사의 만다라 이야기 (26)

# 금강계만다라의 미세회(微細會)

## 만다라가 중생들에게 시사하고 있는 바는 바로 '화합(和合)과 조화(調和)'라 할 수 있다

미세회는 그림1과 같이 금강계 구회 만다라(九會曼荼羅)의 왼쪽 하단에 위치하고 있다. 지난 호에서 설명한 삼매야회의 왼쪽에 배치되어 있다. 미세회의 가장 큰 특징은 모든 불보살의 존상(尊像)이 삼고저(三鉢杵) 안에 그려져 있다는 점이다. 마치 불보살이 등에 삼고저를 지고 있는 형상을 하고 있다.

삼고저(三鉢杵)란 금강저(金剛杵)라고 하는 밀교의 수행도구 가운데 하나로써 짧은 창 양 끝에 세 개의 칼날 송곳이 나 있는 무기다. 창 끝이 하나로 되어 있으면 이를 독고저(獨結杵)라 하고, 셋이면 삼고저(三鉢杵), 다섯 개는 오고저(五鉢杵)라 한다. 또 삼고저(三鉢杵)를 십자형(十字形)로 엮은 것이 있는데, 갈마금강저(羯磨金剛杵)라 한다.

독고저는 진여(眞如)를 나타내고, 삼고저는 삼밀(三密)과 삼신(三身)을 나타내며, 오고저는 오지(五智)와 오불(五佛)을 상징한다. 특히 오고저(五鉢杵)는 양

끝을 모두 합하여 십바라밀(十波羅蜜)을 나타내기도 한다. 십자형(十字形)의 갈마저(羯磨杵)는 사업(事業)의 성취를 의미한다.

원래 금강저는 고대 인도에서 무기로 쓰였는데, 이것이 밀교에 유입되면서 수행자의 도구로 전용되었다. 금강저는 인도 산스크리트어로 Vajra-vara라고 하는데, 단단하고 견고한 것을 깨뜨려 부수는 것으로, 밀교에서 수행방편으로 쓰여졌다. 즉 깊은 신심과 불퇴전의 용맹심을 나타내며 번뇌망상을 좌파(摧破)하는 보살심을 상징한다. 금강저는 대개 철(鐵)

이나 동(銅)으로 만들어진다.

미세회(微細會)의 명칭은 '금강미세만다라(金剛微細曼荼羅)'라는 표현에서 비롯된 것이다.

금강계 구회만다라(九會曼荼羅) 가운데 하나인 미세회는 성신회(成身會)나 삼매야회(三昧耶會)와 마찬가지로 모두 대일여래를 중심으로 37존(尊)이 그려져 있으며 모두 동일한 구조를 취하고 있다. 단지 불보살의 존상(尊像)이 성신회(成身會)와 같은 존상으로 되어 있지만, 특이한 것은 앞에서도 언급하였듯이 그림2와 같이 미세회의 존상들이 모두 삼고저(三鉢杵) 속에 배치되어 있다는 점이다.

왜 미세회의 존상은 다른 만다라와 달리 삼고저(三鉢杵) 속에 그려졌으며, 또 미세회(微細會)라는 이름은 어디에서 근거한 것일까?

그 근거는 『금강정경(金剛頂經)』의 「금강지법만다라광대의계분(金剛智法曼荼羅廣大儀軌分)」에 있는데, 삼고저 속에 존상들을 그린다는 내용에 근거한 것이다. 또 미세회라는 명칭은 '금강미세만다라(金剛微細曼荼羅)'라는 표현에서 비롯된 것이다.

미세회(微細會)는 비로자나불의 지혜가 미묘하고 미세하다는 것을 나타낸다

금강미세(金剛微細)는 비로자나불의 지혜가 금강과 같이 단단하고 부서지지 않으므로 불괴(不壞)의 뜻이며, 그 지혜가 미묘하고 세밀하다 하여 미세(微細)라 한 것이다. 다시 말해서 비로자나불의 지혜가 미묘 미세하다는 것을 삼고저(三鉢杵)를 통해 상징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부처님의 지혜가 미치지 않는 곳이 없고 눈으로 볼 수 없는 곳도 미세하게 두루 모두다 볼 수 있으므로 금강미세라 한 것이다. 그래서 비로자나불의 지혜를 광명변조(光明遍照)요 제암변명(除暗遍明), 능성중무(能成衆務), 광무생멸(光無生滅)이라 설명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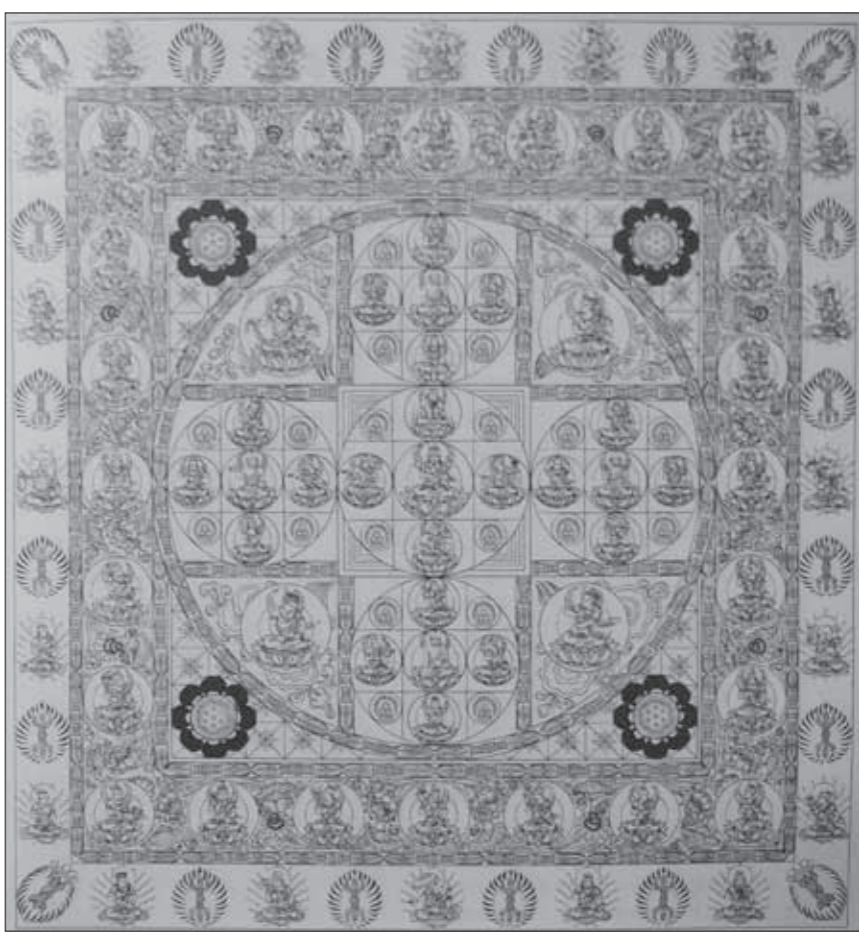
광명변조(光明遍照)는 '광명이 두루 비추다'는 것이고, 제암변명(除暗遍明)은 '어둠을 걷어내고 밝음을 편다'는 뜻이며, 능성중무(能成衆務)는 '능히 모든 일을 이루게 한다'는 것이며, 광무생멸(光無生滅)은 '빛이 생하고 멸함이 없다'는 것으로 불생불멸(不生不滅)을 의미한다.

그래서 비로자나부처님을 본불생(本不生)이라 부르는 것이다. 이는 '본래부터 불생(不生)이오 불멸(不滅)이라는 말이다. 본래불생불멸(本來不生不滅)을 줄여 본불생(本不生)이라 한다. 무시무종(無始無終)으로 상주불변(常住不變)하는 진리의 부처님이다.

『금강정경』에서는 '지혜의 표치(標幟)인 금강저를 코 끝에 두고 이를 관상(觀想)하며, 금강지(金剛智) 그 자체에 오로지 마음을 몰두하여 삼매에 든다'고 설하며, 이를 미세회(微細會)의 만다라(曼荼羅)라고 설명한다.

금강저 가운데 특히 삼고저를 택한 이유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설이 있는데, 하나는 불부(佛部)·연화부(蓮華部)·금강부(金剛部)의 삼부(三部)를 나타내기 위한 것이라고도 하고, 또는 신구의(身口意) 삼밀(三密)을 삼고저에 비유한 것이라고도 한다.

중요한 것은 삼고저 안에 그려진 37존(尊)은 모두 비로자나불의 금강지(金剛智) 안에 있으며, 모두가 삼매에 들어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이



▲ 그림2 미세회(微細會)의 구조

37존의 진언(眞言)을 외우고 인계(印契)를 결(結)함으로써 불신(佛身)을 이루게 된다고 한다.

그런데 미세회는 존상(尊像)으로 이루어져 있으므로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사종만다라(四種曼荼羅) 가운데 대만다라(大曼荼羅)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데, 법만다라(法曼荼羅)라고 부르는 것은 의아스럽게 생각된다.

일반적으로 법만다라(法曼荼羅)라고 하면 진언종자로 이루어진 만다라를 가리키는데 존상(尊像)으로 이루어진 미세회를 법만다라(法曼荼羅)라고 하니 이해가 되지 않는다.

그런데 여기서 법만다라라고 한 것은 그와 같은 의미의 법만다라(法曼荼羅)가 아니고, 『금강정경』의 「금강지법만다라광대의계분(金剛智法曼荼羅廣大儀軌分)」에 근거하여 법만다라(法曼荼羅)라는 이름이 붙여진 것으로 보인다.

그 이유는 알 수 없다.

사종만다라(四種曼荼羅)는 사만(四曼)이라고도 하는데, 『대일경』이나 『금강정경』에 수없이 등장하는 말이다. 사만(四曼)은 우주 삼라만상의 모습을 네 가지로 나눈 것으로, 두 가지 측면에서 살펴 볼 수 있다. 하나는 그림으로 그려진 도회(圖繪) 상의 만다라를 가지고 설명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일체만유의 모습을 두고 설명하는 것이다. 전체상(全體相)과 개별상(個別相)을 보여 주고 있다.

따라서 만다라가 중생들에게 시사하고 있는 바는 바로 '화합(和合)과 조화(調和)'라 할 수 있다. 배척하지 않고 하나를 이루고자 하는 마음, 동체대비심(同體大悲心)이다.

<다음호에서는 공양회(供養會)에 대해 살펴본다>



▲ 그림1 금강계만다라의 미세회 (청색 네모가 미세회다) - 흰 박스 안-

# 서원성취를 위하여 진언엄송과 함께 진언사경을 실천해보십시오

## 원하는 서원을 반드시 이루게 될 것입니다!!!



역음: 법경 중사 (밀교연구소장) / 편찬: 불교충지중 밀교연구소  
발행: 불교충지중 / 인쇄: 동림기획  
면수: 250쪽 / 법보시 가격: 1권당 3,000원  
구입문의: 불교충지중 밀교연구소 (02)552-1080~3

16종의 진언사경집으로 일체재난을 소멸하고 일체서원을 성취하시기 바랍니다.

### < 서원사항 >

- 1. 배우자 및 좋은 사람 만남 발원
- 2. 사업 원만 발원
- 3. 취업 원만 발원
- 4. 건강 원만 발원
- 5. 선망 부모 및 조상 영식 천도 발원
- 6. 학업 및 승수 시험 원만 발원
- 7. 업장 소멸 발원
- 8. 경제난 해탈 및 생활 향상 발원
- 9. 아기 잉태 원만 발원
- 10. 참회 발원
- 11. 가옥 등 재산 매매 발원
- 12. 관재 구설 소멸 및 승소 발원
- 13. 일체 서원 성취 발원
- 14. 지혜 총명 발원
- 15. 부부 및 가족, 동료 화합 발원
- 16. 병고소멸 및 수술원만 발원



# 진각종, 한국밀교문화총람 편찬 발단불사 봉행

## 3년간 30억 투입키로

### 불교 속의 밀교 한눈에 조망하는 계기 마련



▲ 불사 내용을 발표하는 회장 통리원장

진각종이 한국의 밀교 문화를 총 집대성하는 '한국밀교문화총람' 편찬 불사의 시작을 알리는 발단불사를 봉행하고 본격적인 작업에 들어갔다.

진각종은 3월 29일 오후 3시 진각문화전승원 1층 로비 다목적홀에서 '한국밀교문화총람 발단불사 및 사업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성초 총인을 비롯해 통리원장 회정 정사, 종의회의장 덕일 정사, 교육원장 경당 정사, 원로스승 경정 정사, 불정심인당 주교 무의 정사, 서윤길 동국대 명예교수, 전 중앙승가대 교수 종석 스님(이하 자문위원), 서울교구 스승들과 밀교전공 학자들이 참석했다.

통리원장 회정 정사는 인사말을 통해 "밀교문화전승원이라는 이름으로 지금까지 하드웨어 불사는 교육관과 국제체험관, 복지센터, 수행도량에 이르기까지 골격을 갖추어 가고 있다"면서 "이제는 잘 갖추어진 하드웨어 안에 한국밀교문화총람을 집대성하는 등의 소프트웨어 불사를 준비할 때"라고 강조했다.

회정 정사는 이어 "그동안 한국밀교에 대한 자료나 내용이 빈약했다. 앞으로 밀교를 공부할 뜻이 있는 분들에게 밀교를 공부할 충분한 인프라를 구축해 제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서윤길 동국대 명예교수는 축사를 통해 "한국밀교문화총람 대작불사는 고려시대에 밀교대장경을 금니로 출판한 이후 이번이 처음이 아닌가 생각한다"며 "진각종에서의 한국밀교문화총람 불사는 역사적인 의의가 있는 불사"라고 평가했다.

서 교수는 또 "그동안 진각종은 외연을 넓히는 일에 힘을 쏟아 내실을 다지는 일에는

다소 부족했던 것이 사실"이라면서 "이 불사를 통해 앞으로 밀교에 관한 지면이 확대되고 대중들로부터 관심을 불러일으킨다면 진각종은 외연과 내실을 갖춘 종단으로 발돋움 할 것이라고 믿는다"고 말했다.

이어 열린 사업보고회에서는 한국밀교문화총람 불사 의의와 목적, 진행과정 등을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다.

한국밀교 종단으로서 역사적·문화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한국밀교문화총람' 편찬 불사는 2016년부터 2018년까지 3년간 총 30억 원(국고 지원 15억 원)이 투입된다.

불교속의 밀교를 문헌, 역사, 문화적 측면에서 정리와 밀교의 실용적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기초 자료를 마련을 위해 진행되는 편찬 사업은 △한국밀교문헌 목록 및 해제, △한국밀교사연구 편찬 △한국진언문 화집성 및 사전편찬 사업 등 크게 세 분야로 나뉘어 진행된다.

한국밀교문헌 목록 및 해제편찬사업은 한국불교의 역사 속에서 전개된 고려대장경의 밀교부를 비롯한 찬술집의 가치를 부각시키고 내용의 분석 및 파생된 연구들의 활용과 적용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지역별(한국, 중국, 일본, 티베트, 구미권 등) 통합목록작성과 한국 관련 연구목록을 추출할 계획이다.

# 관문점 공동경비구역(JSA) 법당 무량수전 신축불사



대한불교조계종 군중교구(교구장 정우스님)는 3월 24일 목요일 오후 2시 관문점 공동경비구역(JSA)에서 법당 무량수전 신축불사 기공식을 봉행했다.

이날 오전 일산 여에서에서 조계종 전국교구본사 주지협의회 후,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스님과 전국 교구본사 주지사님, 군중교구장 정우스님을 비롯한 주요부대 현역 군승, 한미연합사 부사령관이며 국군불교총신도회장인 김현집 대장, 제 1보병사단

장 이종화 소장, JSA 불자장병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군중교구는 남북평화통일의 염원으로 분단의 상징인 관문점에 한국전통 건축양식으로 무량수전 법당불사를 발원하여 아미타 삼존불을 모시고 6.25전쟁 당시 유명을 달리한 16개국 참전 희생자들의 위패를 모신다는 계획이다. 또한 관문점에 연간 16만명의 내·외국인 방문객들을 대상으로 한국불교를 홍보하기로 했다.

군중교구장 정우스님은 인사말씀에서 "관문점 방문객들에게 한국의 전통 불교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법당 신축을 발원했다"며 "고려시대 양식의 전통 목조 건축물로 신축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스님은 격려사에서 "최근 북한의 핵 개발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로 인하여 이곳 관문점과 가까운 개성공단의 전면가동 중단 등 남북의 관계는 그 어느 때보다 경색의 국면을 치닫고 있다"며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와 남북통일의 염원을 담은 공동경비구역 신축법당 불사는 국민 모두에게 생명이 넘치는 불소식으로 전제되길 바란다"고 기대했다.

무량수전 신축불사는 법당 82.32㎡(24.9평), 종각 9㎡(2.72평) 규모의 목조 건축으로 불사비용은 약 9억원이 소요될 예정이다.

군중교구장 정우스님(홍법문화재단) 1억원, 군중교구 2억원, 군승법사와 각 군법당 불사 등이 8천여만원, 군중교구장 정우스님 화주/후원 3천여만원, 과거사 허운스님 1천만원 등 총액 4억 2천여만원이 모였으며, 계속해서 군승법사와 군법당 불사, 종단 스님 등 사부대중 동참으로 연내 완공할 계획이다.

# 신대승네트워크 창립식 개최 "함께하면 스투파광장의 꿈 이룬다"

### 청화스님 도법스님등 사부대중 100여명 참가



"함께하면 이룰 수 있습니다. 스투파광장의 꿈. 지금 여기에서 살아움직이는 불교만들기위해 서로의 경험과 지혜 모으고자 합니다"

신대승네트워크가 3월 26일 오후 3시 안국역 스키아트회관 10층 강당에서 청화스님 도법스님 법일스님 허태근 참여불교

가연대 대표등 사부대중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창립했다.

신대승네트워크는 김성규 박병기 전준호(대불청 회장) 이영철(큰초 원장) 공동대표를 비롯 80년대 대학 민주화운동과 대불련 대불청 활동을 하며, 94년 종단개혁운동에 함께했던 도반들이 두루 참여했다.

신대승네트워크는 이념적 배경으로 탈개인주의, 불교본연의 비판성, 대승의 사회성, 일상성, 개방과 연대를 설정했다.

키워드는 종단을 넘어 불교로, 불교를 넘어 사회로, 생활속의 불교실현, 새로운 보살상 정립, 공유적 삶의 구현을 도모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불교와 사회의 가교역할은 물론 내부문제에도 관심을 두고 비판을 하되 대안을 가지고 폭넓은 생각을 공유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는 현안과 사안들에 대해 옳고 그름을 따지기 보다는 근본문제를 치유할 대안을 제시한다.

이를 위해 아젠다위원회등을 운영하고, 웹진을 발간하기로 했다.

이날 행사는 1부 신대승원탁회의, 2부 창립식 순으로 진행됐다.

구독신청 02)552-1080

# 조계종 총본산 성역화 불사 첫걸음, 조계사 신도회관 철거식 개최



조계종 총본산 성역화 불사 첫걸음인 조계사 신도회관 철거식이 3월 25일(금) 오전 11시 10분, 조계사 일주문 앞 마당에서

개최됐다. 이번 조계사 신도회관 철거식은 조계사 주지 지현스님, 총무원 부실장스님, 10,27

법난피해자 명예회복 심의위원회 허남오 의원, 조계사 부주지사님, 조계사 김의정 신도회장 및 회장단, 조계사국장스님과 신도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회-삼귀의, 반야심경-내빈소개-경과보고-인사말씀-제막의식-발원문-사홍서원-지신밟기순으로 진행됐다.

조계사 주지 지현스님은 인사말씀에서 "총본산 성역사 불사가 민족문화육성하는 대작불사가 되도록 하고, 대한민국 불자들의 마음을 결집하고 미래사회에 자랑스런 작업이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의정 조계사 신도회장은 발원문에서 "우리절의 쉼터 신도회관 철거를 시작으로 부처님 뜻이 꽃피길 서원하고, 대한민국 중심도량이 되도록 하겠습니다."라고 기원했다.

입문자를 위한 수행 안내서  
**육자의귀염송**  
법경 대정사 지음 / 밀교연구소장 / 법천사 주교  
불교총지중 밀교연구소 발행 / 정가 10,000원 / 114쪽  
\* 구입문의 : (02) 552-1080~3

## 초심자들에게는 '수행입문서' 로, 모든 중도(宗徒)들에게는 '수행지침서' 로 삼을 수 있는 총지중의 수행 총서(叢書)!

# 입문자를 위한 수행 안내서 육자의귀염송

『육자의귀염송』으로 재난소멸과 소원성취를 이루고,  
마음의 평온과 행복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본 책자는 '육자의귀염송의 순서와 방법, 그 의미' 와 함께 총지중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 뿐만 아니라 '진언수행의 목적', '각종 진언의 공덕', '염주의 공덕', '사원에서의 예절', '서원당 예절', '불공 예절' 등 수행에 도움이 될 만한 내용들을 다양하게 실고 있다.

\* '육자의귀염송'에 대한 설명자료와 강의 및 시연은 총지중 홈페이지(www.chongji.or.kr) 삼층밀교, 수행법에서 보실수 있습니다.

# 유물로 보는 비로자나불

국보 제67호  
 구례 화엄사 각황전(求禮 華嚴寺 覺皇殿)  
 소재지 : 전남 구례군 마산면 화엄사로 539,  
 화엄사 (황전리)  
 시대 : 조선시대



▲ 화엄사 각황전

화엄사는 지리산 남쪽 기슭에 있는 절로 통일신라 시대에 지었다고 전한다. 조선시대에는 선종대본산(禪宗大本山) 큰절이었는데, 임진왜란 때 완전히 불타버린 것을 인조 때 다시 지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원래 각황전터에는 3층의 장육전이 있었고 사방의 벽에 화엄경이 새겨져 있었다고 하나, 임진왜란 때 파괴되어 나머지가 남은 조각들만 절에서 보관하고 있다. 조선 숙종 28년(1702)에 장육전 건물은 다시 지었으며, '각황전'이란 이름은 임금(숙종)이 지어 현관을 내린 것이라고 한다. 이 건물은 신라시대에 쌓은 것으로 보이는 돌기단 위에 앞면 7칸·옆면 5칸 규모로 지은 2층 집이다. 지붕은 옆면에서 볼 때 여덟 팔(八)자 모양인 팔작지붕으로, 지붕 처마를 받치기 위해 장식하여 짜은 구조가 기둥 위뿐만 아니라 기둥 사이에도 있는 다포 양식이라 매우 화려한 느낌을 준다. 건물 안쪽은 위·아래층이 트인 통층으로 3여래불상과 4보살상을 모시고 있다. 천장은 우물 정(井)자 모양인데, 벽쪽 방향으로 돌아가면서 경사지게 처리하였다. 화엄사 각황전은 건물이 매우 웅장하며 건축기법도 뛰어나 우수한 건축 문화재로 평가받고 있다.

자료제공=문화재청



내용참조: "불교총정" 타인에대한 덕의편 539p

# 관세음보살 42수(手) 진언

## 22. 오색운수(五色雲手) 진언



옴 바아라 가리라타 맘타

만약 신선의 도를 성취하려거든 이 진언을 외우라

장엄한 불보살님의 세계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일체제법의 본질을 원만하게 성취한 불보살님의 장엄도량을 사진으로 나타낸 만다라를 가정대에 모시고 수행정진의 지표로 삼으실 수 있는 인연을 맺으십시오.

- 전화문의 \_ 불교총지중 총리원 02) 552-1080  
 각 사찰 주교님께 문의하셔도 구입가능합니다.
- 계좌번호 \_ 우리은행 1005-480-047811  
 (계) 불교총지중 유지재단

### 1. 만다라 세트 (금강계 만다라 + 태장계 만다라)

33cm X 33cm (액자포함)  
 30,000원



태장계 만다라 \_ 服藏界曼荼羅

밀교 양계만다라의 하나로 정확하게는 대비 태장계 만다라이다. 대일경에 근거해 그려진 이 만다라는 태아가 모태 속에서 생육되어 가는 것에 비유해 대일여래의 보리심이 모든 생명의 가능성을 간직하고 있다는 것을 나타낸다.



금강계 만다라 \_ 金剛界曼荼羅

밀교 양계만다라의 하나로 '서만다라'라고도 하는 이 만다라는 금강정경에 근거해 그려졌다. 홍성이 부처의 경지 즉, 깨달음에 이르는 과정과 동시에 부처님께서 중생을 교화하는 활동을 단계적으로 나타낸 것이다.

### 2. 가정다라니

46cm X 27cm (액자포함)  
 27,000원



가정다라니

# 경주 월성서 통일신라 후기 관청지로 추정 일곽의 건물지군 확인



문화재청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소장 심영섭)가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정비 사업의 하나로 지난해 3월부터 시행한 경주 월성(사적 제16호) 정밀발굴조사 결과, 하나의 담장으로 둘러싸인 일곽의 통일신라 후기 건물지군이 확인되었다.

이번에 건물지군이 확인된 곳은 월성의 중앙지역인 C지구로, 앞서 진행된 시굴조사(2014.12월~2015.3월) 결과를 토대로 지난해 3월부터 1년간 정밀발굴조사가 이루어졌다.

정밀발굴조사에서 드러난 일곽의 건물지군은 동서 51m, 남북 50.7m의 정사각형 모양이며, 담장을 둘러싼 일곽 안팎에 총 14기의 건물이 배치된 형태로 나타났다.

건물과 담장의 건축 시기는 인화문(도장 무늬) 토기, 국화형 연화문 수막새 등 관련 유물이 다양으로 출토되는 것으로 보아 8세기 중반 이후로 추정된다. 초기에는 담장 안팎에 길이 36m(정면 16칸, 측면 2칸) 규모의 대형 건물 등 6동의 건물을 배치하였으나, 이후 내부 공간 확보를 위해 좌우 경계인 동·서쪽 담장을 허물고 건물 8동을 증축하면서 모두 14동의 건물을 갖추어 왕궁 내 시설을 완성해 나간 것으로 추정된다.

일곽 건물지군의 성격은, 건물 유구들과 함께 확인되는 생활유물 중 흙으로 만든 ‘도제 벼루’를 통해 짐작할 수 있다. 도제 벼루는 50점(편) 이상 출토되었는데 이는 월성 주변의 동궁과 월지, 분황사 등에서 출토된 양보다 월등히 많다. 이러한 점으로 미루어 일곽 건물지군에는 문서를 작성하는 중심 공간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C지구 내에서는 다량의 토기와 기와류 외에 명문이 있는 유물 등이 출토되고 있는데, 지난해에 공개한 ‘의봉4년개토(儀鳳四年皆土)’, ‘습부(習部)’, ‘한지(漢只)’, ‘한(漢)자명 유물’ 외에 ‘정도(井桃)’, ‘전인(典人)’, ‘본(本)’, ‘동궁(東宮)’ 등이 새겨진 기와와 토기가 새롭게 출토되었다.

이 중 ‘전인(典人)’은 궁궐 부속관청인 와기전(기와·그릇 생산 담당)에 소속된 실무자, ‘본(本)’은 신라 정치체제인 6부 중 하나인 ‘본포부’, ‘동궁’은 태자가 거처하는 궁궐을 뜻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아울러 C지구에 대한 탐색조사에서는 두 개의 통일신라 문화층과 5개의 신라 문화층이 남아 있음이 확인되었다. 현재까지 확보된 유물 분석자료에 의하면 월성은 주로 4세기에서 9세기까지 왕궁 또는 관련 시설이 들어섰으며, 신라 멸망 이후 근대 이전까지는 월성 내에 거의 사람이 거주하지 않은 것으로 보여진다.

한편 지난해 하반기에 착수한 A지구(월성 서편지역)의 성벽과 문지에 대한 조사는 현재 진행 중으로, 성벽의 축성과과정과 문지의 흔적은 추후 밝혀질 예정이다.

다만, 지금까지의 조사 자료를 분석해보면, 성벽의 마지막 보수 시점은 8세기 전후로 보인다. 그리고 추정 문지 구간에서는 조선 시대 이후에 월성 내부 출입을 위해 작은 자갈을 깔아 만든 약 3m 폭의 통행시설이 확인되었다.

특히 서성벽 안쪽 평탄지 일부에서는 지금까지 출토된 사례가 없는 용도 불명의 특수 기와가 발견되어 주목된다. 이 유물은 신라에서 기와가 처음으로 사용된 6세기를 전후한 시기에 토기제작기법으로 만든 무문(無文) 암막새를 닮았으나 제작 기법에서 차이가 확인되었다. 연구소는 앞으로 서성벽 내 건물지조사를 통해 특수 기와의 용도, 신라 초기의 기와 도입과정 등을 규명해 나갈 계획이다.

경주 월성 중앙지역에서 확인된 건물지의 규모와 변화과정 등을 확인한 이번 발굴조사 성과는 30일 오전 11시 발굴현장에서 일반에 공개된다.

문화재청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는 신라 천 년 궁성의 체계적 복원을 위한 철저한 고증연구와 학술 발굴조사를 진행함과 동시에, 발굴조사의 새로운 패러다임 정착을 위해 정기적인 성과 공개, 대국민 현장실명회, 사진 공모전, 학생들을 위한 체험 프로그램 등을 함께 시행할 계획이다.

# 문화재청, 제2회 궁중문화축전

대국민 참여 프로젝트 ‘1750 시간여행, 그날!’ 개최



문화재청(청장 나선화)과 한국문화재단(이사장 서도식)이 궁궐의 장소성과 역사성을 기반으로 궁중문화를 창의적으로 재해석하는 문화유산 활용 축제 ‘궁중문화축전’(4.29~5.8.)의 대국민 참여 프로젝트의 하나로, 궁궐의 하루 일상을 재현하는 프로그램 ‘1750 시간여행, 그날!’을 출연할 국민을 공모를 통해 모집한다.

지난해 궁중문화축전에서 첫선을 보여 열띤 호응을 얻은 ‘1750 시간여행, 그날!’은 하루 동안 창경궁의 시계바늘을 1750년(영조 26)으로 되돌려, 왕의 생활과 궁

전 속 사극으로만 보아왔던 역사의 한 장면 속으로 여행을 떠나는 흥미로운 시간이 될 것이다.

온라인을 통해 문무백관, 상궁, 나인, 호위군사, 차비(差備), 의장수(儀仗手) 등 총 200여 명을 선착순으로 모집하며, 오는 31일부터 4월 19일까지 문화재청, 한국문화재단 누리집에서 참가 신청서를 내려받아 전자우편으로 신청하면 된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문화재단 누리집을 참고하거나 운영사무국으로 문의하면 된다.

국민이 직접 참여하는 ‘1750 시간여행, 그날!’은 궁궐에서 진행되는 행사를 단순히 관람하는 것에 머물지 않고 행사를 이끌어 나가는 역사 속 인물로 출연하여 1750년 창경궁에서 벌어지는 하루 일상을 온몸으로 체험하고 느껴보는 잊지 못할 추억이 될 것이다.

문화재청은 제2회 궁중문화축전 기간 동안 ‘1750 시간여행, 그날!’을 비롯해 다양한 국민 참여 프로그램을 통해 우리 문화유산과 전통문화를 친근하게 접하고 즐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궁궐을 과거의 공간이 아닌, 지금 바로 우리 곁에 살아 있는 소통의 문화 공간으로 자리 잡게 할 계획이다.

# 문화재청, 신라 교량건축 기술 정수

‘경주 월정교’, 문루…복원공사 착수

문화재청(청장 나선화)과 경상북도 경주시(시장 최양식)가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정비사업의 하나로 경주 월정교(사적 제457호)의 문루(門樓) 복원공사에 착수하였다.

월정교는 ‘삼국사기’ 경덕왕조(條)의 ‘19년…2월…궁의 남쪽 문전상에 춘양월정 두 다리를 놓았다’(十九年…二月…宮南南川之上起春陽月淨二橋)라는 기록에서 전하는 교량으로, 신라 천 년 궁성인 월성 남쪽을 감아 돌며 자연적인 해자(壕子, 적의 침입을 막기 위해 성 밖을 둘러 파서 만든 못) 역할을 하는 남천(南川, ‘문전의 현 명칭’)의 서남단에 위치한다.

고대 신라인의 뛰어난 교량 건축술을 보여주는 월정교는 신라왕경 남서쪽 지역의 주된 교통로로 사용되었을 것으로 보여, 신라왕경의 규모와 성격을 파악할 수 있는 중요한 유적으로 평가된다.

발굴조사 당시 교각(橋脚, 다리를 받

는 기둥) 사이에서 불에 탄 목재조각과 기왓조각이 수습되어, 교각 위에 누각(樓閣)이 놓인 누교(樓橋)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현재 월정교는 2008~2013년에 걸쳐 66.15m 길이의 교량이 복원된 상태로, 이번 문루 복원공사는 2017년 말까지 총 110억 원을 투입하여 교량 양 끝을 받치고 있는 남·북측 교대(橋臺) 위에 문루 2개 동을 건립할 예정이다.

새로 지어질 문루는 정면 5칸, 측면 3칸(17.7×9.6m), 최고높이 15.67m의 중층 건물로, 주심포 양식에 팔각지붕 형태를 띤 한식 목구조이다.

월정교 복원·정비사업은 1975년 교각·교대 실측조사를 시작으로 1984년 석재 조사, 1986년 발굴조사 등 관련 조사와 학술연구를 꾸준히 이어오다 2005년 ‘월정교 복원 기본계획 및 타당성 조사 연구’를 통해 구체화되기 시작하였다.

이후 2013년 교각과 누교를 복원하였으며, 이번 문루 복원은 2013년 문화재위원회(4회)에 결친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수립된 복원 계획 등에 따른 것이다.

한편, 문루 복원 공사와 더불어 올해 하반기에는 광장, 관리동, 주차장, 조경 등을 포함한 주변 정비사업도 함께 추진되며, 2017년 말까지는 문루 복원을 포함한 모든 사업이 마무리될 예정이다.

문루 복원을 끝으로 제 모습을 갖추게 될 월정교는 현재 역점적으로 추진 중인 신라왕경 8대 핵심유적 복원·정비사업의 가시적 성과가 도출되는 신호탄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문화재청과 경주시는 월정교 복원을 통해 통일신라의 뛰어난 교량건축방법과 건축도목기술을 재현하는 한편, 이와 연계한 옛길 복원 등 새로운 관광자원으로의 가치 창출로 문화융성의 모범적인 사례로 만들어 갈 방침이다.

# 국립공원관리공단, '한섬지 천리길 생태탐방 프로그램' 실시

함께해요 주민이 직접 해설하는 재미있고 생생한 이야기 가득한 길

국립공원관리공단 지리산국립공원남부사무소(소장 양기식)이 지리산둘레길, 섬진강길, 남해바래길, 바다백리길 등 산과 강, 바다를 이어주는 한섬지 천리길을 걸으며 주변 명소를 탐방하고 지역의 역사, 문화, 생태 등에 대한 재미있고 생생한 이야기를 지역 주민가이드에게 직접 들을 수 있는 ‘한섬지 천리길 생태탐방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2014년부터 시작한 한섬지 천리길은 아름다운 자연환경과 영호남의 문화가 공존

하는 한려해상, 섬진강, 지리산권의 기존 걷는 길을 연결한 화합과 소통의 생태관광 프로그램이다.

4월 2일 시범운영을 시작으로 30일 부터는 일반인 참가자를 모집하여 10월까지 총 10회가 운영 될 예정이며 운영코스는 지리산둘레길 6개 구간, 남해바래길 2개 구간, 통영 바다백리길 2개 구간 등 총 10개 구간이다.

전 국민 누구나 참여 가능하고 참가비는 무료이며, 참가 방법은 지리산국립공원(남

부, 북부)사무소, 한려해상국립공원(동부) 사무소로 프로그램 운영일 10일 전까지 전화예약을 통해 참가신청을 하면 된다.

지리산국립공원남부사무소 최기호 자원보전과장은 ‘한섬지 천리길 생태탐방 프로그램’을 통해 영호남의 대표적인 길을 홍보하고, 지속적인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많은 탐방객이 한섬지 천리길을 참여하여 지역경제에 보탬을 줄 수 있는 지속가능한 생태탐방 프로그램의 모범 모델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고 밝혔다

## 각종 축원(祝願)을 위한 『발원문 및 법문집』

“화도방편(化度方便) 가운데 제일의 불공이며, 불공 가운데 으뜸이 간절한 발원과 여법한 법문이다”

“발원문과 법문은 법향(法香)이나 감로수(甘露水)와 같은 것으로, 망자(亡者)와 생자(生者) 모두를 청정일념(淸淨一念)에 들게 하는 중요한 의식이다”


『각종 불공 발원문 및 법문집』에는 새해 불공 발원문을 비롯하여 각종 서원성취 불공, 결혼, 출산, 생일, 기제불공 등 총 30여 종의 축원불공 관련 발원문과 법문이 수록되어 있다.

편찬 : 불교 총지중 밀교연구소(비매출) / 발행 : 불교 총지중 인쇄 : 동림기획 / 면수 : 총 258쪽



불교총지종 본산 '총지사' 서원당

불교의 생활화·생활의 불교화를  
 실천하는 불교총지종.  
 진언밀교 총지도량에서  
 즉신성불의 대도를 이루시길 서원합니다.



**불교총지종**

총기 45년 새로운 모습으로  
 교도님들과 전국의 불자들에게 다가갑니다.

원정대심사의 가르침을 이어받아  
 정통밀교의 흥포를 위해 힘없이 달려왔습니다.

아낌없는 심원을 보내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리며 교도님가정에  
 부처님의 자비광명이 충만하시기를 서원합니다.

**제87회 춘계강공회**

| 일 시 | 개강식 총기 45년 4월 26일(화)  
 회향식 총기 45년 4월 28일(목)

| 대 상 | 종단 전 스승님